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 영향 요인 연구

임혜경\*

하태수\*\*

박은순\*\*\*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안전인식, 공기청정(-), 여성이고 전반적 행복감 영향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재교육,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측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는 긍정적 성격, 직장만족, 상대적 가구소득, 안전인식, 재교육, 협력의향, 성차별인식(-) 등 가장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 및 근로환경을 관리하며, 긍정적 정서 함양과 재교육, 성차별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제어: 사회복지공무원, 행복, 공무원의 행복

\* 제1저자,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일선관료, 시민참여 등이다(sapsari88@hanmail.net).

\*\* 교신저자, 영국 Univ. of Exeter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조직구조, 조직관리, 리더십 등이다(taesooaha@hanmail.net).

\*\*\*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 시민참여 등이다(dceson@hanmail.net).

## I. 서론

2018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284조에 이르고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32.9%에 달한다(지방재정365 사이트).<sup>1)</sup> 예산은 바로 정책이라고 할만큼 사회복지의 기능은 재정규모를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행정과 주민이 최일선에 만나는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관공서 이미지가 강했던 일선 행정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지방행정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일선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권용수, 2006)

2017년 기준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20,770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257,879명의 8.1%이다(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의 수가 110,760명으로 일반직공무원의 43.0%인 것과 비교하면 재정규모 대비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이 보편주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에 따른 복지정책 증가로 관련 행정 및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공무원의 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늘어난 복지수요에 비해서 미흡한 인력충원의 현실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과로로 내몰리게 한다. 특히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노동, 부족한 지지와 지원, 감정노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은 장시간 노동을 하며, 감정노동의 비중이 높고, 우울수준이 높으며, 응답자의 27.5%는 최근 1년 사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인 있다고 응답하였다(임상혁, 2013; 서울신문, 2017; 프레시안, 2017)

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건강, 삶의 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립스키(Lipsky, 1980)에 의하면 공공정책은 고위행정가들에게 만들어지기보다 일선공무원의 북적북적한 사무실이나 일상적인 시민접촉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시민들이 정부를 경험하는 것은 일선관료이며 이들의 행위는 정부 정책으로 전달된다(Lipsky, 1980; 임혜경·하태수, 2016).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행정에 대한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사이트(<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검색일 2019.3.14.

시민들의 신뢰와 정책 체감은 달라지며, 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김상곤·김성중, 2008).

한편, 근로환경 개선만으로 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요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태도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황석준(2013)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업무환경에 대한 지각수준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의 하위범주인 공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의 안녕한 삶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강조한다(Booms & Bitner, 1981; 문승연·김춘희에서재인용, 2015:348). 행복한 사회복지사는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승연 외, 2013: 37).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개인과 가족, 집단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며 행복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생산적이며,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은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켜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현채송, 2011; Lyubomirsky et al., 2005; 문승연 외, 2013: 38).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반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는 직장요인뿐 아니라 개인적 배경, 가족,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생활 균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개인의 태도와 선택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관계, 정치·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서 공무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직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일반인의 관점보다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계층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종합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41).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행복개념과 측정

#### 1) 행복의 개념

행복의 어원은 그리스어 ‘eudaimon’로서 ‘good’을 의미하는 ‘eu’와 ‘god’ 또는 ‘spirit’을 의미하는 ‘daimon’의 합성어로, ‘good god’ 혹은 ‘good spirit’ 즉 ‘행운이 함께 함’을 의미한다(McMahon, 2006: 구교준 외, 2015:99).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시기 이전까지 행복이란 신 혹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신이 허락하는 행운과 축복을 의미하는 외적 관점이 지배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계몽주의와 공리주의시기를 거치면서 행복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인간으로 이동하였다(구교준 외, 2015: 99-100)

행복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관점이 있으나 행복을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구교준 외, 2015: 98).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행복에 관한 접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행복에 관한 접근은 행복을 주관적 만족이나 쾌락으로 보는 쾌락주의적 입장(hedonism)과 행복을 개인의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보는 자기실현적 입장(eudaimonism)이 있다(구교준 외, 2015:98; 구교준외, 2017: 181; 문승연 외, 2013: 40).

쾌락주의(hedonism)에 기초한 접근에서 좋은 삶이란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고 얻는 삶이며 행복은 쾌락으로부터 기인한다. 디너(Diener, 1984)는 쾌락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소개하였다.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 긍정적인 감정의 존재와 부정적인 감정의 결여상태’이며(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은 행복이 가지고 있던 모호성을 극복하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행복연구로 이어지게 하였다(구교준 외, 2015:102; 김경미 외, 2018: 5).

자기실현(eudaimonism)에 기초한 접근은 좋은 삶은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구교준 외, 2015: 107). 자기실현적(eudaimonism)관점의 행복은 심리적 안녕감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얻게 되는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이다(Ryff, 1995; Ryff&Singer, 2000; 구교준 외, 2015: 107). 1990년대 셀리그만(Seligman,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경제학 분야의 센(Amaetya Sen)의

역량개념이 자기실현(eudaimonism)의 시각으로 행복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구교준 외, 2015: 107-109). 역량이란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삶의 기능의 집합이며(구교준 외, 2017: 187), 역량접근은 개인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구교준 외, 2015:109).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삶의 질,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행복,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김정미 외, 2018).

## 2) 행복 측정 척도

### (1) 국가 행복 지표

행복에 관한 측정은 국가적 수준의 행복지수와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 수준의 행복지수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차원에서 점차 중요하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성격,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및 인구학적 요인, 제도적 요인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측정이 쉽지 않음에도 각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지수를 산정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윤강재·김계연, 2010) 특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소득이 절대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면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수),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사의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rrigence Unit),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국가' 지수, 국내 김용하 외(2011)의 'KIHASA-Chosun Welfare Index2011'(KCWI),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등이 국가적 수준에서 행복 또는 삶의 질 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이내찬, 2012).

### (2) 개인의 행복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복 측정은 디너(Deiner, 1984)가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과 리프(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연구(김명소 외, 2003), 한국 노인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연구(임은기 외, 2009),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연구(이수연, 2009) 등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등이 한국인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연구로서 두 지표는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문승연 외, 2013).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은 디너(Diener, 1984)가 정립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이라는 경험에 내포되어 있는 주관성을 강조한다. 경험의 핵심요소는 인지적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이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면서 부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는 것이다(Diener, 1984; 문승연 외, 2013: 41). 국내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를 개발하였다(서은국 외, 2011; 구재선 외, 2011). 단축형 행복척도는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기존척도가 25개 문항인 것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9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인 반면에 ‘심리적 안녕감’은 의미있는 삶에 관한 평가이다(이현주 외, 2008). 좋은 삶 또는 바람직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Ryff, 1989; 김명소 외, 2001; 이장희 외, 2011).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자율성(autonomy), 자아수용(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등 여섯 요인으로 구성된다(김명소 외, 2001).

한편,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 문항 행복감 척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척도는 설문문항의 수가 각각 9문항, 6문항으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의 우려가 있다. 최근에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들어 당신은 삶의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와 같이 단일문항으로 행복을 측정하기도 한다(변미리, 2015; 하태수, 2019).

## 2. 행복의 영향요인

### 1) 행복 영향요인

행복을 결정짓는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는 행복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행복의 정의에 대한 합의 없이 행복의 결정요인을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구교준 외, 2015: 115). 행복을 연구하는 초기 학자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은 개인의 내면적인 부분을 밝히는데 관심을 두는데 이는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평가에 따라 행복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문승연 외, 2013: 39). 이스털린(1974) 연구를 계기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결정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김선아·박성민, 2014; 김선아·박성민, 2018: 5).

구교준 외(2015)는 행복의 결정요인을 개인수준과 사회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수준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처한 상황·조건이며, 사회수준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과 물리적 환경 등이다(구교준 외, 2015; 구교준 외, 2017).

동일한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인지적 측면은 구분된다. 과거에는 경제적 요소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같은 정서적 요소, 국민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성의 수준, 사회전반에 형성된 신뢰의 수준을 중요하게 다룬다(김선아 외, 2014:177; 김선아 외, 2018: 5-6). 김선아·박성민(2018)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은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행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 등이며(Easterlin, 1974; 1995; Ram, 2010; Ott, 2010; Rode, 2013; 구교준 외, 2014; 김선아 외, 2018: 6), 인지적 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긍정적 경험, 신뢰수준 등이다(Ram, 2009; Helliwell & Huang, 2011; Leung et al., 2011; Han et al., 2013; Rodrinquez-Pose & von Berlepsch, 2014; 김선아 외, 2014; 김선아 외, 2018: 6). 국가수준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인지적 요인은 행복의 선행요인이자, 환경적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절효과를 가진다(김선아 외, 2018).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심리적, 인지적 측면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재선 외(2011)는 인구학적 특성, 외적인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가치롭게 여기는 일에 관여할 때 행복하다(Csikszentmihalyi, 2004; Deci&ryan, 1987; 구재선 외, 2011). 가정의 월소득과 같은 변인보다 소득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좀 더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반 국민의 행복이 아닌 공무원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은 직업군에 관한 행복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개인의 행복연구가 주로 심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문승연 외, 2013: 43). 공무원에 관한 연구는 일반인의 관점보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계층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김미숙·조경호, 2000:41; 홍순복, 2010: 299). 소수에 해당하는 연구들도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직무요인 중심으로 연구되었다<sup>2)</sup>. 김미숙·조경호(2000)는 공무원의 삶의 질에 직업만족, 가족생활만족, 가구재정만족, 여가시간만족, 친구관계만족, 지역사회 만족, 한국거주 만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공무원의 직업생활만족에는 담당업무, 보수수준(보수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 승진기회, 원하는 부서에 근무, 자유와 권리보장, 직업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문승연 외(2011)는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하는 행복과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행복으로 구분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의 성취를 통한 만족감, 직무에 대한 마음가짐, 긍정적 사고 등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가 있으며,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행복에는 가정과 가족, 일과 대인 관계, 성취, 그리고 건강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문승연 외, 2011).

논의를 종합하면, 행복의 영향요인은 개인수준과 사회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사회 수준의 요인도 환경적 또는 객관적인 요인과 조건과 환경을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인지적 측면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직무 및 근무환경을 포괄하는 직장생활, 개인적 특성, 개인(자신)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 전반적 사회인식을 고려하였다. 그 외 여가시간 만족은 근로시간 및 여가활동 관련한 변수로 구성하였고,<sup>3)</sup>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신뢰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사회인식에 포함하였다.

## 2)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앞 절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 개인적 특성, 자신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5개 범주로 행복 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행복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행정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를 참고하였다.

2) 홍순복(2010)의 세무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양점미·문승연(2014)의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3) 여가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문진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여가의 양적시간보다 여가의 질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여가시간은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고, 여가활동의 수준 등과 연관된다.



### (1) 직장생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일의 성취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얻는다(문승연 외, 2011). 공무원이라는 동일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행복에는 직장생활 만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직업과 일은 성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한 만족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다(Veroff et al., 1981; 현경자, 2004). 직장생활과 관련한 요인은 직업만족, 일만족, 업무자율성, 일 스트레스, 근로시간 만족, 초과근무보상 만족, 승진만족, 보수만족, 부대시설 만족, 교육훈련 충분, 일·가정 양립만족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하여 만족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때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종사하여 만족한다면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행복할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일 만족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신승배, 2015; 오민지 외, 2017; 김현정 외, 2018; 김경미 외, 2018). 둘째, 업무자율성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적극적, 자율적으로 개입할 때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소정, 2015; 임정기 외, 2016). 업무자율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전문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므로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일(업무) 스트레스는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여 일로 인한 만족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행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도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숙·조경호, 2000; 김현정 외, 2018). 과도한 업무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일 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고, 쉼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을 약화시켜 행복감 저하를 초래 할 것이다. 다섯째,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 인식도 행복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김현정 외, 2018: 252).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상쇄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승진도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승진은 자기발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승진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행복감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일곱째, 보수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보수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평가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

는 점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여덟째, 직장 내 부대시설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직장 내 부대시설은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주고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홉째,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때 자기효능감이 제고되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만족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가정과 직장 양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경미 외, 2018).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현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과 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2) 개인적 특성

개인수준의 특성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학력, 재교육), 혼인, 자녀수, 65세 이상 부양가족수, 소득(개인소득, 가구소득), 고용형태, 직급, 주거소유, 종교활동 등이 있다. 첫째, 연령의 경우 구재선 외(2011)는 연령, 성별은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김상곤·김성중(2008)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하였고, 일부 연구들은 30~40대까지 행복수준이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곡선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행복의 척도에 따라 연령의 영향이 달라진다(한민 외, 2012). 둘째, 성별의 경우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행복 수준이 높을 것이다. 공직은 다른 직장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적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셋째, 교육수준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교육의 영향은 다른 변수보다 뚜렷하지는 않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구교준 외, 2015:117), 거시적 차원의 국가행복지수들은 교육수준을 국가의 행복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행복감을 연구한 일부 연구들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명준 외, 2011; 한학진 외, 2012; 윤명숙 외, 2012). 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구교준 외(2015)는 교육에 있어 정규교육보다도 정규교육 이외의 고등교육, 직업, 취미교육 등이 스스로의 성장 및 실현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실현적(eudaimonic) 성격을 갖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구교준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학력과 평생교육·은퇴준비 교육 등의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넷째, 혼인 상태도 영향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긍정적 감정을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혼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반면 개인의 성장과 성취가 중요한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성장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비혼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강성진, 2010; 현대경제연구원, 2014:8). 다섯째 자녀수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수는 돌봄 및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강성진, 2010).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부담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득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스털린(Easterlin, 1974)의 역설을 통해 소득수준이 행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이내찬, 2012). 지역주민 행복연구에서도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였으며(김상곤 외, 2008), 맞벌이 가정의 행복에도 소득이 영향을 준다(김경미 외, 2018). 일곱째 고용형태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변미리, 2015; 구교준 외, 2015). 여덟째 직급도 행복의 영향을 줄 것이다. 직급이 높으면 업무 권한도 확대되고 보수도 높아지게 되므로 자기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져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민 진, 2018: 51-55). 아홉째 전세대란, 집값 폭등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주거 소유 여부도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월세나 전세로 살 경우 이사 등을 해야 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경우 좀 더 행복할 것이다(남희은 외, 2011). 마지막으로 종교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Diener et al., 1999: 289; 이현국·이민아, 2014).

### (3) 개인(자신)에 대한 인식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인지적 측면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대적 소득 수준 인식, 건강인식, 긍정적 성격이 있다. 첫째 상대적 가구소득과 같이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신승배, 2015: 193; 임재영 외, 2016: 180). 행복은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기대를 충족시킨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수 자체보다 보수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김미숙·조경호, 2000: 40), 둘째, 건강하다는 인식도 주요 요인이다.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의 필요조건이면서 자신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자유를 주는 요인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 때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김미숙·조경호, 2000; 김상곤 외, 2008; 남희은 외, 2011). 셋째 긍정적 성격도 주요 변수이다(Diener & Lucas, 1999; 임재영 외, 2016). 긍정적 성격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 평가를 하도록 하여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민 행복연구에서 시민들은 경제사회적 조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변미리 2015).

#### (4) 생활 환경

생활환경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형태, 여가문화, 출퇴근, 공기청정 등을 고려하였다. 우선 주거형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거리 통근이 좀 더 좋은 주거를 위한 선택이라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은주·전승봉, 2017). 도서관, 문화생활, 운동과 같은 여가의 여건 및 빈도 등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윤태, 2010; 구교준 외, 2015: 120). 여가활동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포츠 참여 및 문화예술 참여와 같은 참여형 여가활동은 행복감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윤혜진 외, 2016), 여가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질 경우 여가문화 기회가 많아져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여가시간 만족은 행복감을 높인다(김미숙·조경호, 2000). 출퇴근 교통 만족도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퇴근 환경에 대한 만족이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경기도민 대상 연구에서도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진은애·진장익, 2017). 공기청정 수준도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의 문제가 삶의 행태를 좌우하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이 높은 환경은 건강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지만 공기청정 수준이 높으면 자유로운 생활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공기청정에 대한 만족은 행복감을 높여줄 것이다.

#### (5) 전반적인 사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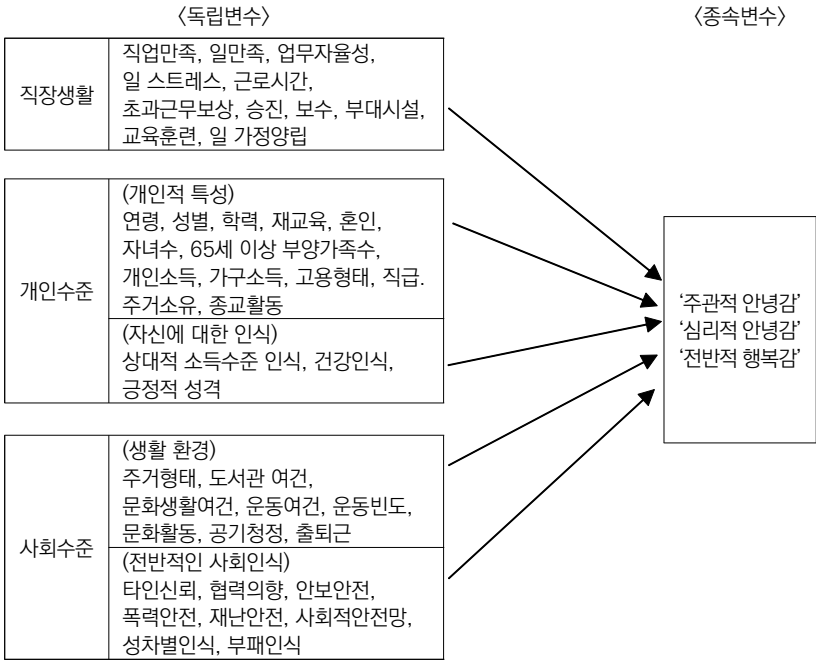
행복수준 결정에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신뢰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행복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Fukuyama, 1995; Putnam, 1993; 구교준 외, 2015).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타인신뢰, 협력의향(이타심), 테러, 폭력 및 재난안전 인식, 성차별, 부패 인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타인에 대한 신뢰

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서울형 행복지표의 구성과 측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및 이웃에 대한 신뢰는 행복에 영향을 준다(변미리 외, 2017). 둘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협력의향도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에 이타심, 협력의향을 가진 이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은 경제적인 빈곤,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지원 및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협력의향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안보·테러, 폭력, 재난안전, 사회안전망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이 폭력, 재난, 테러 등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게 되면 불안감이 증가되고 불안은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여 개인의 자율적 성취나 활동을 제약하며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도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므로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김태운, 2010: 38).

성차별 인식과 사회 부패수준 인식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차별과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면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이 감소되어 행복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하태수, 2019). 우리나라는 공식사회에 여성 진출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높은 직렬로서 다른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43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행복을 측정하는 3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1〉 분석 모형



### III. 방법론

#### 1. 측정도구

#####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서은국·구재선(2011)의 단축형행복척도(COMOASWB)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 영역은 3문항으로 ‘①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②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 ‘③나는 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④즐거움, ⑤행복한, ⑥편안한 정서 3가지를 측정하고, ‘부정적

정서' 영역에서 ⑦짜증나는, ⑧부정적인, ⑨무기력한 정서 3가지를 측정하며,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느끼지 않았다)~7점(항상 느꼈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①+②+③+④+⑤+⑥-⑦-⑧-⑨로 산출한다.

##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 & Singer(2008: 20-25)가 개발한 6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6개 문항은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만족'인 ①'귀하는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항인 ②'귀하는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통한 잠재력 실현' 문항인 ③'귀하는 나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자기 발전감을 느끼십니까?', '인생의 목표'에 관한 문항인 ④'귀하는 인생의 목표(혹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기회 활용'을 묻는 ⑤'귀하는 귀하를 둘러싸고 있는 기회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결정 기준' 문항인 ⑥'귀하는 사회적 압력에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까?'이며, 1점(전혀 아니다)~7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①+②+③+④+⑤+⑥으로 산출한다.

## 3) 전반적 행복감

행복단일정도는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로 묻고, 1점(매우 불행)~7점(매우 행복)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행복영향요인

행복 영향요인은 총 4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령, 성별, 학력, 직급을 제외한 39개 문항의 설문지 문항은 <표 1>과 같다. 설문에 대한 측정은 설문문항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지만, 값이 높을수록 소득, 고용 등의 수준이 높고, 여건 및 상황에 대한 만족, 긍정성이 높은 것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단 19세 이하 부양가족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당초 부양가족이 많은 것을 만족이 낮은 문항으로 설계하였으나 분석결과 예상과 달리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코딩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성차별 인식, 부패인식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 및 부패인식이 높은 것으로 설계하였다.

〈표 1〉 설문지 문항

변수	설문지 문항
개인소득	귀하의 2018년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소득	귀하의 2018년 가구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상대적소득	귀하의 2018년 가구총소득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소득 10분 위 중 어디쯤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형태	귀하의 고용형태는?
건강인식	귀하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긍정적 성격	귀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교육	귀하는 현재 최근에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는 취미교육(목공, 농업 등) 혹은 은퇴 후 인생2모작을 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혼인	귀하의 혼인상태는?
19세이하부양가족	귀하의 19세 이하 자녀수는?(R)
65세이상부양가족	귀하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65세 이상 가구원수는?(R)
종교활동	귀하는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시는 편입니까?
안보테러안전	귀하는 우리나라가 안보위험이나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	귀하는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력안전	귀하는 우리나라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안전망	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신뢰	귀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협력의향	귀하는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차별인식	귀하는 우리나라에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패인식	귀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소유	귀하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거형태	귀하는 현재 어떤 형태의 집에 거주하십니까?
공기청정	귀하는 귀하의 생활공간(집과 직장)에서 공기 청정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출퇴근교통	귀하는 귀하의 출퇴근 교통상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도서관이용여건	귀하는 도서관 이용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문화생활여건	귀하는 문화생활(영화, 음악회, 연극, 미술전시회 등)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문화활동빈도	귀하는 얼마나 자주 문화활동을 하십니까?
운동빈도	귀하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여건	귀하는 운동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직업만족	귀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일만족	귀하는 하시는 일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업무자율성	귀하의 업무자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업무 결정에의 참여, 업무 수행 방식/절차, 속도/마감시간, 순서/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 스트레스	귀하의 일(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입니까?
근로시간	귀하는 직장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근무보상	귀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귀하는 승진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보수	귀하는 보수 총액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부대시설	귀하는 직장 내 부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훈련	귀하는 공직 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가정양립	귀하는 일·가정 양립(가족친화)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2. 조사 및 분석 방법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감 영향요인 측정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352명이며 휴직자는 46명, 현원은 306명으로 남성은 79명, 여성은 227명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21일~2월 8일에 걸쳐 수원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198부이며, 그중에서 작성 오류가 있는 28부를 제외한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sup>4)</sup>. 사회복지 공무원의 56%정도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3개 행복영향요인 문항을 모두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2중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검정력 최소기준(.8)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수를 축소하였다.<sup>5)</sup>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독립변수는 요인분석 후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낱개 변수와 요인으로 합쳐진 변수 등 총 22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따라 다중선형회귀분석과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여러개 문항을 합산하여 구한 수이므로 비례척도라 할 수 있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반적행복감은 순서척도이므로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은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순서로짓회귀분석은 STAT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설문조사 문항 중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일부 문항을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되지 않은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검정력 .8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 수는 독립변수가 20개일 경우 160부, 10개일 경우 120부 이상이다(Miles and Shevlin, 2001: 125).

###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170명의 특징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연령의 경우 25세 이하 4명(2.4%), 26~30세가 25명(14.7%), 31~35세 40명(23.5%), 36~40세 32명(18.8%), 41~45세 27명(15.9%), 46~50세 27명(15.9%), 51~55세가 14명(8.2%), 56세 이상이 1명(0.6%)이다. 학력은 대졸이하가 133명(78.2%)으로 가장 많고, 석사 이하는 29명(17.1%), 고졸이하 8명(4.7%) 순이다. 직급은 9급이 45명(26.5%), 8급 55명(32.4%), 7급이 39명(22.9%), 6급 27명(15.9%), 5급 2명(1.2%)이다. 성별은 남성이 39명(22.9%), 여성이 131명(77.1%)으로 여성이 많다.

〈표 2〉 설문응답자의 특징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구분		빈도	구성비
연령	25세 이하	4	2.4	직급	9급	45	26.5
	26~30세	25	14.7		8급	55	32.4
	31~35세	40	23.5		7급	39	22.9
	36~40세	32	18.8		6급	27	15.9
	41~45세	27	15.9		5급	2	1.2
	46~50세	27	15.9		4급	0	0.0
	51~55세	14	8.2		3급	0	0.0
	56세 이상	1	0.6		결측	2	1.2
	합계	170	100.0		합계	170	100.0
학력	고졸 이하	8	4.7	성별	남성	39	22.9
	대졸 이하	133	78.2		여성	131	77.1
	석사 이하	29	17.1		합계	170	100.0
	합계	170	100.0				

## IV. 분석 결과

### 1. 종속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 세가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Pearson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세가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는 전반적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가 .721로 가장 높고, 전반적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713,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705 순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상관계수가 .700 이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의미가지의 행복척도인 심리적 안녕감과 쾌락적 행복의 척도인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두 척도가 행복의 상이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세 가지 행복감 척도 간 상관관계 분석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Pearson 상관계수	1		
	N	170		
심리적 안녕감	Pearson 상관계수	.705**	1	
	N	170	170	
전반적 행복감	Pearson 상관계수	.713**	.721**	1
	N	170	170	170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2. 독립변수 구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eigen value 1.000 기준이며, Varimax 회전 방식과 주성분 분석 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KMO 값이 .762,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0이며, 서로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은 1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12개 요인은 총분산의 66.15%를 설명하였다.

추출된 12개 요인에 대하여 요인별로 포함된 항목들을 단일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 .700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4개의 요인을 단일 척도로 구성하였다. 단일척도로 구성된 4개 요인은 직장만족요인, 개인가정요인, 여가문화요인, 안전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과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값은 〈표 4〉와 같다. 직장만족요인에는 직업만족, 일만족, 업무자율성, 일스트레스, 근로시간, 초과근무보상, 보수, 부대시설,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만족 항목 9개가 포함되었으며, Cronbach's  $\alpha$  는 0.863이다. 개인가정요인으로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직급, 혼인, 19세이하 부양가족, 65세이상 부양가족, 주거소유 등 8개 항목으로 Cronbach's  $\alpha$  값은 0.772이다. 여가문화요인 문화활동빈도, 도서관이용여건, 문화생활여건, 운동요건 등 4개 항목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0.719이다. 안전요인은 안보테러안전, 재난안전, 폭력안전, 사회안전망 등 4개 항목

으로 구성되며, Cronbach's  $\alpha$ 값은 0.798이다.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43개 문항 중에서 25개 문항이 4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8개 요인은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700 이하로 나타나 단일 척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8개 요인들에 적재되었던 개별 문항들과 요인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별 문항은 모두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모두 22개이다.

〈표 4〉 요인적재량과 신뢰도 분석

직장만족요인				개인가정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항목삭제경우 Cronbach's $\alpha$	변수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항목삭제경우 Cronbach's $\alpha$
직업만족	.541	.863	.853	연령	.748	.772	.707
일만족	.703		.837	개인소득	.660		.706
업무자율성 높음	.639		.848	가구소득	.616		.809
일 스트레스 약함	.725		.848	직급	.632		.720
근로시간 만족	.728		.847	혼인	.808		.758
초과근무보상만족	.686		.850	19세이하부양가족	.735		.742
보수만족	.737		.844	65세이상부양가족	.452		.769
부대시설만족	.622		.854	주거소유	.682		.768
일가정양립만족	.578		.851				
여가문화요인				안전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항목삭제경우 Cronbach's $\alpha$	변수	요인 적재량	Cronbach's $\alpha$	항목삭제 경우 Cronbach's $\alpha$
문화활동 빈도	.604	.719	.756	안보테러안전	.763	.798	.781
도서관이용여건	.627		.699	재난안전	.783		.707
문화생활여건	.744		.538	폭력안전	.689		.754
운동여건	.714		.613	사회안전망	.680		.749

### 3.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3개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모델 1) 회귀모형의 유의확율은 0.000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0.499이고, 분산분석의 F값은 8.421, VIF는 1.152~2.026이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은 직장만족요인( $\beta$ 값 0.406,  $p < .001$ ), 긍정적 성격( $\beta$ 값 0.373,  $p < .001$ ), 안전요인( $\beta$ 값 0.146,  $p < .050$ ), 공기청정만족( $\beta$ 값 -146 $p < .050$ ), 성별( $\beta$ 값 0.129,  $p < .050$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모델2) 유의확율은 0.000이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0.474이고, 분산분석의 F값은

7.710, VIF는 1.152~2.026이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긍정적 성격( $\beta$ 값 0.322,  $p < .001$ ), 상대적가구소득( $\beta$ 값 0.238,  $p < .05$ ), 직장만족요인( $\beta$ 값 0.204,  $p < .05$ ), 협력의향( $\beta$ 값 0.163,  $p < .05$ ), 안전요인( $\beta$ 값 0.150,  $p < .05$ ), 성차별인식( $\beta$ 값 -0.138,  $p < .05$ ), 재교육( $\beta$ 값 0.130,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높다.

전반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로짓회귀분석(모델 3)은 유의확율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만족요인(2.288,  $p < .001$ )이 가장 크고, 긍정적 성격(1.144,  $p < .001$ ), 재교육(1.039,  $p < .05$ ), 공기청정만족(-.586,  $p < .010$ ), 출퇴근교통만족(.361,  $p < .05$ )이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Y: 주관적 안녕감	Y: 심리적 안녕감	Y: 전반적 행복감	
독립변수	std. $\beta$	std. $\beta$	Coef.	Odds Ratio
직장만족 요인	.406***	.204*	2.288***	9.855
개인가정 요인	.102	-.105	.252	1.286
안전 요인	.146*	.150*	.541	1.719
여가문화 요인	-.011	-.033	-.507	.601
성별	.129†	-.003	-.694	.499
상대적 가구소득	.016	.238*	.138	1.148
고용형태	.020	.003	-.100	.904
건강	.034	.043	.425	1.530
긍정적 성격	.372***	.322***	1.144***	3.139
학력	-.045	.074	.305	1.357
재교육	.072	.130*	1.039*	2.827
종교활동	.019	-.082	.036	1.037
운동빈도	.005	.089	-.072	.929
성차별 인식	-.056	-.138†	-.391	.675
타인신뢰	.008	.022	-.028	.972
부패인식	-.086	-.054	-.283	.752
협력의향	.113	.163*	.453	1.573
주거유형	.100	.069	.206	1.229
공기청정	-.146†	-.136	-.586**	.556
출퇴근교통	.048	.040	.361*	1.435
승진	.072	.025	-.114	.892
직무교육	-.129	-.039	-.454	.634
	R2 .566	R2 .544	Log Likelihood -200.61	
	Adj-R2 .499	Adj-R2 .474	LR chi2(24) 147.93	
	F 8.421***	F 7.710***	Prob > chi2 .000	
	VIF 1.152~2.026	VIF 1.152~2.026	Pseudo R2 .269	
N	170			

주: \*\*\*  $p < .001$ , \*\*  $p < .010$ , \*  $p < .050$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 세 가지 행복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행복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장만족요인, 긍정적인 성격, 안전요인, 공기청정,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성격, 직장만족요인, 상대적 가구소득, 안전요인, 재교육, 협력의향, 성차별인식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반적 행복감에는 직장만족요인, 긍정적 성격, 재교육,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1) 공통영향요인

3개의 행복척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장만족요인, 긍정적 성격이다. 즉,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감이 높고, 긍정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일수록 행복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일에 대한 만족이 행복감 증진에 영향요인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신승배, 2015; 오민지 외, 2017; 김현정 외, 2018). 직장, 일 만족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신의 일과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직무를 갖도록 해주는 조직관리적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로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 공무원의 직장생활 만족이 감소하게 되면 그들의 행복감도 감소할 것이고,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직장생활 만족을 높이기 위한 조직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긍정적 성격이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증진에 있어 긍정적 성격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iener&Lucas, 1999; 임재영 외, 2016). 사람의 성격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탄의 경우 ‘국민총행복’을 관리하며 국민총행복지수에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면서 긍정적 정

서를 세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부탄에서는 국민의 긍정적 정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개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긍정적 습관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셀리그만을 비롯한 긍정심리학자들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 2) 주관적 안녕감 영향요인

공통영향요인이외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안전요인, 공기청정만족, 성별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포항 지진사건 등을 겪으면서 재난안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폭력 및 학교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정부 신뢰를 감소시켜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의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주관적 안녕감에 안전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신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공기청정기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정과는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결과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은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공기청정기가 행복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공기청정에 대한 만족 요인을 상쇄하는 다른 변수의 조절영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기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일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활환경에 비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작용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일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공무원의 삶의 질 연구에서 여성공무원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김미숙·조경호, 2000) 이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장에 비해 일·가정양립 등에 따른 경력단절의 불안이 없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것보다 여성공무원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3)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공통영향요인을 제외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대적 가구소득,

협력의향, 안전 요인, 성차별 인식, 재교육이다.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기능하면서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신이 선택한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특징하는 하는 직업군이다(임정기 외, 2016). 그러므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상대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에 만족하는 공무원의 경우 권력, 돈, 물질을 지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협력의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지는 직업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돕겠다는 협력의향이 높을 사람일수록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 협력의향의 영향은 신승배(2015), 임재영 외(2016), 김미숙·조경호(2000), 변미리(2015)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셋째, 성차별 인식의 영향은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점과 사회복지 직렬에 여성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정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차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직의 경우 일반행정직 및 타 직렬에 비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이 가진 역량에 비해 기회와 의사결정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에서 여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던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행복지수 연구들은 성평등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의 및 사회적 신뢰와 관련이 있다(임재영 외, 2016). 넷째, 안전의식의 경우도 동일하여 사회에 대한 안전 및 신뢰 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낮고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인식함으로써 일에 대해



만족하고 긍지를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재교육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 자신의 삶이 좋은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직무능력에 관한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고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은퇴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취미, 기술 또는 인문학적 배움의 기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삶을 살아갈수 있는 제2의 인생 교육을 통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4) 전반적 행복감 영향요인

공통변수를 제외하고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교육,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이다. 재교육이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조직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현재의 직장생활에만 한정되는 인사정책에서 발전하여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 등 제2의 인생설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사 및 교육훈련의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외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의 경우 물리적 생활환경이 행복감을 증진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장생활만족과 긍정적 성격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긍정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및 마음건강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3개 행복측정지표 중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직장생활만

족, 긍정적성격, 상대적 가구소득, 협력의향, 안전인식, 성차별인식, 재교육 등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의미있는 삶'에 대한 행복이라는 점에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을 주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향요인 중에서 상대적 가구소득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행복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의향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 봉사정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무와 일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직의 전문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안전요인, 성차별인식의 영향은 사회정의와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안전과 사회정의가 실현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성취와 보람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공직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대표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공직 운영 및 인사정책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재교육은 심리적 안녕감과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 은퇴교육 등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직무 위주의 교육에서 발전하여 공무원 인문학, 은퇴이후 준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교육과 재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직무를 구성하고, 직장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이 직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생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 정서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건강프로그램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해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강철희·최명민·김수연.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 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고은주·전승봉. 2017. “경기도민의 통근시간과 삶의 질”, 《GRI 연구논총》, 19(3): 25-49.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여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정보》, 48(2): 317-339.
- \_\_\_\_\_.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_\_\_\_\_. 2017. “행복의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 26(2): 179-215.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 : 한국인 행복과 삶의 질, 3》. 서울: 국민대통합위원회.
- 권용수.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및 이직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18(3): 743-764.
- 김경미·제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 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미숙·조경호. 2000.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논집》, 20(2): 86-122.
- 김수연·이동옥·함우택. 2013.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이 생활만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1): 887-898.
- 김순관. 2014. “서울시 출근자의 대중교통 행복지수 높이기”. 《정책리포트》, 180: 1-18.
- 김선아·박성민. 2014.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일반 가가와 저소득층 가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4): 173-210.
- \_\_\_\_\_. 2018. “OECD 국가의 행복결정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행복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2(1): 1-28.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운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김진덕. 2011. “기업의 교육훈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HRD연구》, 13(1): 99-116.

- 김현정·최서희. 2018. “근로시간이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249-278.
- 남희은·백정원·류지선. 2011. “행복결정요인이 지역주민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53-63.
- 문승연·김춘희. 2015.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347-368.
- 문승연·김춘희·박희수. 2013. “사회복지사 행복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35-64.
- 문승연·최인숙. 2011.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1): 1-24.
- 민 진. 2018. 《조직관리론》(제6판). 대영문화사.
- 박은순·임혜경·하태수. 2019. “기초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연구》, 33(2): 289-318.
- 박용환. 1973. “공무원 교육훈련의 태도변화 효과 분석”. 《행정논총》, 11(1): 1237-1253.
- 변미리. 2015. “서울시민의 행복감도와 행복지표 활용 방안”. 《정책리포트》, 202: 1-17.
- 변미리·민보경·박민지.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서울신문》. 2017. “5년 114명 과로사 무너진 직장의 꿈”. 10월 16일.
- 서은국·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손명준·최영환·최정웅. 2011. “노동가능여성의 여가활동에 따른 행복도 결정 요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567-581.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양점미·문승연. 2014.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복지학회》, 33: 89~116.
- 오민지·이수영. 2017.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3): 489-508.
- 유현준. 2018. 《어디서 살 것인가》. 을유문화사.
- 윤혜진·김영문·김은희. “세대별 여가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 28(12): 353-370.
- 윤강재·김계연. 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월: 86-98.
- 윤명숙·이묘숙. 2012.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32(2): 397-413.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문진·황선환. 2014.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행복은: 이스털린 역설의 여가학 적용".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8(2): 29~38.
- 이미림. 2012. "요양보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마음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215-223.
- 이수연. 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7(2): 107-122.
- 이하나·한정원. 2018.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커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7): 231-238.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이현주·이미나·최인수. 2008. "한국 청소년의 안녕감 척도(K-WBA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 임은기·정태연. 2009. "한국 노인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한국노년학》, 29(3): 1141-1158.
- 임상혁.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향". 《복지동향》, 176: 11-14.
- 임재영·구교준·최슬기. 2016. "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행정논총》, 54(3): 175-198.
- 임정기·김교성·이현주. 2016. "사회복지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21-234.
- 임혜경·하태수. 2016.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123-162.
- 조경호·김미숙. 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27-45.
- 진은애·진장익. 2017. "행복과 통근 역설: 통근 시간의 증가가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 감소시키는가”. 《GRI연구논총》, 19(3): 117-134.
- 《프레시안》. 2017. “‘복지부동’은 옛말, 자살 충동 시달리는 공무원들”(임상혁). 7월 2일.
- 하태수. 2019.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33(2): 123-148.
-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김경미·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한학진·김혜숙. 2012.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장여성과 전업주부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1): 181-200.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현경자. 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60-100.
- 현대경제연구원. 2014.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 공무원의 행복감 급락”. 《VIP리포트》, 통권575호: 14-24.
- 현채송. 2011. 《정서조절과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순복. 2010. “세무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298-305
- 황석준.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환경이 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Csikszentmihalyi, Mihaly. 1990.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 역(2004). 서울: 한울림.
- Deci, Edward L., & Richard M. Ryan. 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24-103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d, & Frank Fujita. 1995. “Resource,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 Diener, Ed, & Richard E. Lucas.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Sage
- Diener, Ed, & Eumkook Mark Suh. 1999. "22-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434~452), NY: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d, Eumkook Mark Suh, R. E. Lucas, & H. L.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asterlin, Richard. 1974. "Does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and M. W. Reder(ed.).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89~125), N.Y.: Academic Press.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Han, S., Kim, H., Lee, E., & Lee, H. 2013. "The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associat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from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183-1200.
- Helliwell, John. F., & Haifang Huang. 2011. "Well-being and trus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5): 747-767.
- Leung, Ambrose, Cheryl Kier, Tak Fung, Linda Fung, & Robert Sproule. 2010.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3): 443-462.
- Lipsky, Michael.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Lyubomirsky, Sonja, Laura King, & Ed Diener.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iles, Jeremy, & Mark Shevlin. 2001. *Applying Regression & Correlation*. London: Sage.
- McMahon, Darrin M. 2006.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NY: Atlantic Monthly

Press.

- Okun, Morris A., William A. Stock, & Marilyn J. Haring. 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111-132.
- Ott, Jan.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Some non-controversial options for governm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31-647.
- Putnam, D.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m, Rati. 2009.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orm large cross-country samples." *Public Choice*, 148(3/4): 483-490.
- \_\_\_\_\_. 2010.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Additional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4): 409-418.
- Rode, Martin. 2013. "Do good institutions make citizen happy, or do happy citizens build better institu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5): 1479-1505.
- Rodríguez-Pose, Andrés, & Viola Von Berlepsch. 2014.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happiness in Eur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2): 357-386.
- Ryff,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_\_\_\_\_.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9-104.
- Ryff, Carol D., & Burton H. Singer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re Pres.
- Seligman, Martin EP, & Mihaly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Veroff, Joseph, Elizabeth Douvan, & Richard A. Kulka. *The Inner American: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 A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Sense of Happiness of Street-level Public Social Workers

Haekyoung Lim, Taesoo Ha & Eunsoo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sense of happiness, of public social workers that promote citizens' happiness. We reviewed various studies, that addressed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nd selected many variables which may affect sense of happiness of public social workers. Then, we conducted a survey of public social workers in Suwon city, and analyzed data. We measured sense of happiness, based on the three concepts o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overall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is affected by job satisfaction, positive personality, safety, air purity, and gender (female). Psychological well-being is affected by positive personality, job satisfaction, relative household income, cooperation intention, safety, gender, and re-education. Factors affecting overall happiness are job satisfaction, positive personality, re-education, air purity, and commutation condi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hat city government managers provide various support, for improving professional pride, encouraging positive minds, providing re-education, and ensuring gender equality.

※ Keywords: public social workers, happiness, happiness of civil servants